



2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제검토, 신항만 벨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음 10월 27일) 제388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5극 3특' 성장엔진 공동대응 나서

도-전북 지역 10개 대학
국가균형발전 위해 '맞선'
특성화 연구대학 구축 등
실행 위해 사업 기획부터
성과관리까지 공동 수행



15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 국립군산대, 전주대, 호원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대학들과 '거점국립대 육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10개 대학이 지역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5일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도내 대학들과 '거점국립대 육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앞서 전북거점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미래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협약에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전북대, 국립군산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교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가 참여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현재 지방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20만원으로, 서울대(6,300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지역 우수 대학 육성에 나선 배경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도내 대학은 △특성화 연구대학 구축 △AI 기반 융합교육 혁신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협력 생태계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

진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이 전북대의 특성화 연구대학 전환과 학부 교육 혁신을 이끌고, RISE 체계를 통한 지역대학 동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미래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

이 전북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 미래산업과 연계한 연구·교육·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 걸음"이라며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북대와 함께 실질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심봉사 눈 뜨게 하려는 심청이 같은 심정' 전북 발전 위한 강력 드라이브

민주 이원택 의원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발맞춰 내발전 발전전략 수립... 새로운 미래동력 시대 열어가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 인당 수에 몸을 내맡긴 심청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후 전북도 탈피를 위한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드라이브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이 지난 30여년간 외발적 발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금까지 나후를 탈피하지 못한채 허우적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발맞춰 새만금 지역을 적극 활용해 내발전 발전전략을 수립, 새로운 미래동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이 한태평양 시대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인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만들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새만금 이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과 발을 맞춰 나가야 도민들의 경제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재

명 대통령의 정책,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삼각편대를 이뤄 새만금 지역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보와 함께 조만간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전북이 가속화되는 인구소멸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도민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전환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전북은 절대 영원히 나후를 탈피하지 못한다"며 "향후 4년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는가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치러질 도지사 지방선거를 위해 도내 시군의회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전북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화물공제조합, 일선 건설현장,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전북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민생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일 오후 4시 익산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에서 원광대 민주 동문회 주관으로 임오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초대가수 이정석 가수, 안진걸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의 슬로건과 '함께한 민주, 함께할 이원택'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반대세력 다 쓸어버리겠다" ...尹, 2023년부터 내란 준비

내란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군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부터 이미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외환 특검팀(특별감사 조은석)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기, 그 목적을 구체화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기는 최소 2023년 10월 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상민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

군참모총장,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이후 실제로도 반영됐다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됐다. 또한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로 할 건지' 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을 통해 2024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벌어진 정치 상황 등을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계엄을 준비해오고 있던 것이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로 보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이 처음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특히 대선 직후인 2022년 7~9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정기과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특검은 파악했다. 이러한 증거와 진술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한 이유가 본인이 언급했던 '거대야당 폭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근거가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보면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으며,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고 봤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을 독점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 리스크를 일거에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며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입법독재, 탄핵,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다. 준비시기를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내란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사법·입법권 장악 → 권력 독점·유지 목적

2023년 10월 이전 군 관계자들과 내란 준비

남원 육용종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시 주생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해를 도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11번째 확진 사례다. 해당 농장은 H5형 항원이 확인되자마자 즉시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육종이던 종계 4만1,000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

장 61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내 가금농장 314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며, 방역지역 외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58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

내장산 우화정